

제 24 장 사도 행전 Tape #8113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경배하며, 주님, 당신을 찾으오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허락해 주시고 관대하게 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파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밤에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대항하고, 당신의 사람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일관되게 체계를 갖추어 있던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대항하여 서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모든 적을 대항하여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장의 끝에서, 40 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노출된 한 음모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맹세에 자신들을 묶었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의 사령관에게 말하도록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는 작은 모의를 기획했습니다. 바울에게 더 충분히 질문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회의에 데리고 나오도록 그들은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의도는 그들이 바울을 빼앗아 가기 위해, 매복했다가, 군사들과 바울을 기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그 모의를 얻어 들었는데, 그는 와서 바울에게 들려주자, 바울은 그 조카에게 군대의 사령관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가 유다의 수도였는데, 그곳으로 압송되어야만 하므로, 그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하게 로마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밤 세 번째 시간인, 저녁 9 시경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송되기 시작하였는데, 사백 명의 군사와 칠십 명의 기병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가이사라에 데려다 놓고, 헤롯의 궁전에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를 지켰습니다.

1 절 “**닷새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빠져 나온 뒤를 말합니다.) “**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불어라는 변호인과 함께,**” (이 더들로는 구변 좋은 연설가입니다.)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므로,**” 2 절 “**바울이 불러 나오매 더들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가 악하고 사악한 벨릭스에게 아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알랑거리며 아침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또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으로 이 민족이 매우 귀중한 일을 이루었나이다.**” 3 절 “**벨릭스 각하 우리가 큰 감사와 더불어 어느 때고 어디에서나 이것을 환영하나이다.**” 4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괴롭히지 아니하고자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려이 들어 주옵소서.**” 지금 그는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고발의 첫 번째 요소는, 바울이 해독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관대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케 한 열쇠는, 그들이,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라 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실제로 치안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놓아주랴? 고 말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선언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 분이 로마의 권위와 통치를 대항하는

것으로 내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혐의의 결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해독을 끼치는 친구로 고발되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로마에 대하여 치안의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모자로서, 치안 방해에 대해서, 해독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를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5절 “이는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몸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이 사람은 세상의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도록 구하고, 로마 정부를 향해 국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선동을 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이기 때문이라.”** 지금 오늘날 우리는 나사렛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들로와 그의 고소가 나사렛 사람들의 종파인, 그리스도인들을 칭한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된 곳입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종종 나사렛의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소년들이 가진 그들의 이름, 즉 예수와 여호수아 가운데서 그 분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시대에 소년들에게 매우 흔히 불리던 이름이었고, 구약에서 영웅시 된 후에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평범한 이름이 되어버렸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어떤 예수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말을 영어 음가로 쓰면 바요셉, bar Joseph 임. 즉 son of Joseph 이라는 영어 음이 됨], 또는 나사렛의 예수라고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졌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나사렛인의 이 종파의 주모자가 된 것으로 고발되었는데, 그 용어, 주모자[a ringleader]란, 한 갱단의 리더가 반지를 가진 것에서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알지만, 그가 이 선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를 데려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법에 따라 재판하려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 꼭 그를 죽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절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예, 여보세요. 여기서 그[루시아]가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들이 그를 정말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가 큰 폭력으로 기습했다는 것이지요. 경찰의 만행, 그러나, 당신은 알다시피, 그가 그를 죽이도록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했던 것이지요. **8절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게 나오라 하였으니 각하게서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이 일에 관하여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항하는 이 고소를 당신에게 가져오도록 여기로 루시아가 우리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체사장 아나니아는 이제 늙은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약 100km 정도가 되는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쉽고 즐거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이 고속버스나 리무진, 또는 무엇이랄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형이 험한 지방을 당나귀를 타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타고 넘어와야 하는데,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여 이 고발들을 하려고 내려온 것인데, 그가 바울로 인해 매우 성이 나게 되었습니다. **9절**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들은, 예, 그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라고 말했기에, 더둘로가 만들고 있었던 뜻 같은 말과 고발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과연 그러하다 하니라.”

10 절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바울은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데, 역시 로마의 법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칠년 동안입니다. 사마리아에서 2 년과 지금 유다에서 5 년으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며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하여 답변하리이다.” 11 절 “각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열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오는데 5 일이 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7 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는 있었던 것은 일주일 미만이므로, 그것은 단지 열이틀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 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어떤 그룹과, 어떤 대화도 없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도시에서도, 회당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13 절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 없나이다.” 그들은 증거가 없으니, 당신은 분명하게 고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미는 고발이 진실하다면 어떤 종류의 증거를 보여야 했는데, 그들은 어떤 증인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을 증명할 어떤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근거 없는 고발이면, 이것은 물론 법원에서 전혀 받아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고발일 뿐이니, 그래서, 그들은 이 일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4 절 “그러나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또는, 이단 종파를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용어, 길이란 말은 초기 기독교에 주어졌던 용어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내려온 단지 그 어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한 지방에 국한되어 있기는 했으나, 마침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규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용어는 그 길이었기에, 어떤 교회들의 이름을 무슨 길이라고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교회를 대신하는 가장 초기의 용어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른다! 라고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다 믿으며,”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단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불렀으나, 사실, 나는 단지 성경구절에 대해 전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구절의 전부를 믿지 않지만,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마는, 성경구절의 모든 것과 대언자들의 모든 것을 마침 믿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쓰여진 것들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메시야에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써있습니다. 그 분이 멸시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죽음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대언들과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메시야에 대한 대언들을 그들은 서로 관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영[적]화시켜 버렸습니다. 고통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의 고통당하시는 것과 죽음에 대해 말한 성경구절들을 다소 영[적]화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화합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적인 알레고리라고 말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분은 다윗의 집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 분의 통치와 거기 평화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은 멀리 당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함께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알게 되었고, 그 분의 죽음에 그 범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구절의 모든 것을 믿지 않았으나, 바울은, 내가 쓰여진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물론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메시아에 대한 많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구절이 선언했던 모든 것을 믿으므로,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15 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양편을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12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단 12:2-3). 다니엘이 마지막 날들에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경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유대인의 믿음에서, 그들이 죽은 자와 다가올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16 절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스스로 힘쓰나이다.” 나는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힘을 쓰고 있었는데, 무례 없는 그 양심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이것을 향하여 노력했고, 항상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몇 장전에,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했던 것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는 것에 대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나누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나누었으니,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사람들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17 절 “이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나라에게 줄, 백성에게 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8 절 “드릴 때에 내가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과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보았나이다.”** 그들은 나를 거기 성전에서 분명히 보았고, 내가 결례를 행했고, 정결케 된 것을 알았습니다.

19 절 “그들이 만일 나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할 것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그들은 반드시 고발하고야 말겠다던 자들입니다. 당신이 알지만, 이 친구들은 주변에는 있지도 않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가졌다면 그들이 틀린 자들이지, 바울은 절대로 옳고, 법적으로 맞습니다. 여기까지 드러났던 모든 것은, 증거가 안 된다, 증거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평강히 화가 난 이 친구들이라면 여기에다 반드시 고발을 해놓았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20 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공회 앞에서 있을 때에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내가 했던 악한 소행에 대해서 회의 앞에서 말하도록 하세요!

21 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의치기를, 이 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러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심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다른 일이 없나이다 하니,” 바울은, 그것이 내가 말한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이 길에 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에 관하여 끝까지 다 알리라 하고,” 벨릭스는 결정을 할 때, 항상 미루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경우도 연기하고자 하여,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연기하는데,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말입니다.

자, 여기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는, 그 길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온 시몬, 시몬 마구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기억할 것인데, 빌립이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설교했을 때,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스스로 행세했고, 빌립이 내려와 기적을 행하자, 그만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도 매료되었는데, 그 이유는 놀라운 기적이 빌립을 통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동안 사람들을 속여 왔는데, 그가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마술로 일을 행했으나, 빌립이 행한 하나님의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행한 설교와 기적 때문에, 믿게 되자, 그도 역시 믿는 자가 되고, 적어도 침례를 받기로 한데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근처를 다소 어슬렁거렸는데, 아마도 빌립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 흉내를 내려고 했을 것입

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손 얹고 안수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봐요, 그 속임수를 좀 사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며, 사람 위에 내 손을 얹으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능력을 내가 좀 사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이는 내가 보니 네 쓸개의 쓴 맛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지배하던 통제와 능력을 잃었기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 시몬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식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벨릭스가 드루실라의 남편으로부터 그녀를 구애해 올 때 고용했던 자가 시몬 마구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시몬은 기독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몬 마구스와 함께 대화하며 그가 기독교에 첫 번째 노출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드루실라의 첫 번째 남편, 아지즈로부터 그녀를 구애해 오는데 마술사를 고용했다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그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루었습니다. 아직 내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백부장을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집에 체포되어 있었으나, 얼마간의 자유가 있었기에, 그의 친구들은 와서 그를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거기서 그와 함께 있었고, 물론 빌립도

있었는데, 이는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사실상 2 주전에 열렸던 이 심문에서 바울의 집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일은, 왜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이유인데, 그는, 바울이 박해자의 우두머리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의 결과로, 빌립은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해 뒤에, 여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불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불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 거기서 바울의 집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가졌거나, 혹은 도리어 그의 친구들은 그를 방문하는데 자유로웠습니다. 누가처럼 아리스다고도 거기서 그와 함께 있었고,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거기 가이사랴에도 있었는데, 빌립과 그의 딸들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정부의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그에게 확실한 자유를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기다림 속에서 2 년을 지냈습니다. 자,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을 때, 그에게, 네가 로마도 가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로마에서 증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2 년간 있는 동안,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바른 것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기는 할 것인가? 그렇다면 왜 내가 여전히 여기 있는 건가? 그리고, 왜 주님은 바울을 2 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게 하셨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울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이 친구는 수년 동안 밤낮으로 행하고 있었으니, 끊임없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아, 그것은 안식일과 같은 시간이야! 단지 돌려주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도 갈 수 없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기는, 이 당시 그 기간에 바울은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도 누가와 공동으로 집필했을 것인데, 그 이유로 누가가 그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 가까이 거기에 있으면서, 기꺼이 기독교를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다소 배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믿는 자들에게 전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유대주의로 다소 빠져 들어가는가를 보았고, 그리하여, 뒤로 물러가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있으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썼고, 유대주의를 넘어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였습니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이 위대한 편지가 히브리인의 믿는 자에게 쓰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이사랴에 체포되어 집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2 년 동안에 썼을 것입니다.

24 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그 여자는 헤롯 아그립바 1 세의 딸이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교회에 대항하여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던 자입니다. 이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그는 베드로도 체포했고, 그를 앞으로 데려다가 다음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와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구출해 내자, 헤롯은 간수들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로 돌아갔고, 그 후 잠시 지나 죽었는데, 성경은 천사가 그를 치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롯 아그립바 1 세의 딸이고, 침례자 요한의 목을 친 헤롯 안타파스의 손녀가 되니, 그녀의 형제는

바로 헤롯 아그립바 2 세가 됩니다. 당신이 25 장을 읽으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다음 장에서, 헤롯 아그립바 2 세가 무대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마사의 왕이었던 아지즈의 아내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벨릭스와 공개적인 간음을 행하고 사는 것이죠. 이는 그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개적인 간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타시투스, 그에 관하여 그는 방탕한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악했다는 말이지요. 그가 노예의 영을 가지고 왕으로서 갖는 모든 특권을 실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 (그는 의심할 것 없이 기독교에 대해, 그 길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듣거늘”** 바울은 그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것과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유를 말했는데, **25 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대답하되,”**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 분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하기를 바라십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바라십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되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나, 기쁨, 예수님, 다른 사람, 나라고 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각자가 그 순서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당신은 나중이라는 그런 곳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도 기쁨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른 것과 같은 삶을 살기를, 정직한 삶, 순결한 삶, 건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일들에 대해 그에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중용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에 있어 절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과도하게 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루두루, 균형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통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그에게 변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악을 가지고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날 그것은 당신까지 잡을 것이고, 어느 날 당신은 그 과거를 직면할 것이며,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구절은(히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죄인들의 심판인 계시록에서(계 20:7-15) 묘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설 것이고, 이 육체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으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설 것인데, 그들이 저주를 받는 곳에 서 있으면, 그들은 자기의 형벌을 받고, 불이 타는 못인, 게헤나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 일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벨릭스,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그다지 잘 행하지도 못했으며, 모든 악에 자신이 유혹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제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벨릭스!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벨릭스는 떨었습니다. 종종 성령의 설득이 있으면, 사람은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밤을, 나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때가 십대의 아주 이른 시기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그 밤에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나와 누이만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밤에 성령님께서 내 죄에 대해 매우 깊게 설득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혀 기억할 수는 없었으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목사의 이름뿐이고, 메시지는 전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 죄를 크게 인식하고, 거기서 떨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했을 때, 나는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앞으로 나간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 밤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나를 덮었는지에 대해 나는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고,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 밤에 부모와, 내 자신을 주님께 꼭 정말로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벨릭스는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시 연기하고 말았는데, 결정을 미루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결정한다는 핑계로 발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단지 죄를 깨닫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죄를 깨달음 아래 떨림의 능력이 있는 경험조차도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을 가져오는 것은 그 죄를 깨달음에 대한 어떤 한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취할 수 없었던 단계를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요? 떨었다고요? 예, 회심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만 가라 적당한 때에 너를 부르리라 하니,”** 더 편한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더 편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발뺌을 하고,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결정에 있어, 발뺌을 하는 벨릭스와 같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는 시간에, 그들은 그것을 연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 편안한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편안한 시간을 기다리며, 그 결정을 연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됩니다. 단지 그들은 죄를 지어 은혜의 날을 망쳤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결코 더 편안한 날은 오지 않고, 지옥에는 더 편안한 날을 기다리고자 결정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26 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를 바랐으므로,” (여러분은 그가 부패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바라고 있었으며, 바울에게 이용할 자금이 있었음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현금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는 그가 이 사실을 간증했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용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며 허리를 굽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흥미롭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흥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뇌물을 주고받기 위해 몸을 굽혔을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성취하느니 차라리 그는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벨릭스는 뇌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이 돈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아마도 그가 꼭, 음, 바울이 어느 날 백 달란트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 봅시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27절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의 실정에 대한 고발로 인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패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정부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정책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어야 했으나, 네로의 가까운 친구인 그의 형제 팔라스의 중재로, 네로와 가까운 관계인 그의 형제 때문에, 그의 생명은 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방되었고, 이것으로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편안한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그가 약간의 악한 행위를 지속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바르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지만, 바울을 대항하여 고발하고 있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발을 당해 로마로 돌아갔을 때, 바울을 감옥에 묶어 둔 채 떠나므로, 아마도, 당신도 알겠지만, 그들이 그를 위해 어떤 호의적인 편지를 보낼 이유가 일어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부패한 자군요. 그래서 베스도가 거기의 로마 권력과 권위를 계승하여 오는 때까지 바울은 묶여진 채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하는, 베스도 앞에서의 변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카이사르에게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는 그의 딜레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아그립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 장은 흥미롭고, 황홀한 장입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그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계속 보면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오늘 밤 모이게 하신 이 특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과도함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중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위대한 심판으로서 당신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음, 잘했다, 신실한 종아!’ 라는 권장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 앞에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